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제주 지역주민의 인식*

Jeju Islanders' Perception
on the World Natural Heritage Registered in 2007

조문수** · 박시사*** · 노경국**** · 오상운*****

Cho, Moon-Soo · Park, Si-Sa · Roh, Kyoung-Guk · Oh, Sang-Un

ABSTRACT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heritage tourism is one of the emerging markets. Recently scholars and marketers in the travel and tourism areas started to show their interest in this new sector. However the researchs on heritage tourism have rarely been conducted overseas, either have in Korea been carried out.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was inscrib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by UNESCO at the 31st World Heritage Convention on June 27, 2007. This is the first World Natural Heritage list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Jeju Islanders to World Heritage enrolled. For this study, spatial proximity, birthplace, attachment and involvement as tourism players were employed to find perception variances among Jeju locals. The first findings show that residents far from heritage demonstrate positive perception compared to residents who live close to heritage. The second results indicate that natives(born in Jeju) have less negative perception. The third findings represent that locals who have more attachment display positive perception on world heritage. The last reveals that Islanders who have higher degree of involvement in tourism sectors hold more favourable perception.

핵심용어(Key words) : 세계자연유산(World natural heritage),
지역주민 인식(Resident perception),
인식 차이(Perception variances), 애착도(Attachment)

* 이 논문은 2007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e-mail: chomns@chej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e-mail: smiletour@chej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lawer22@hanmail.net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tourismgyu@empal.com

I. 서 론

관광 분야에서 유산이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Apostolakis, 2003). 유산관광이란 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활동으로 고유성과 교육성이 강조되고 있으며(Tunbridge & Ashworth, 1996), 요즘 많은 유산관광지에서는 ‘교육’과 ‘오락’의 체험을 유산 관광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많은 체험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다(Urry, 2003).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지만 이에 따른 비용과 이익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비용이 이익을 초과할 때에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Van Der Borg, Costa & Gotti, 1996). 유산관광과 관련되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호와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균형 있게 해소하는데 있다(Leask & Fyall, 2006). 특히 지역주민은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핵심 이해관계자이지만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Gursoy, Jurowski & Uysal, 2002). 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적인 정책 수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Sheldon & Abenoja, 2001) 관광관련 학문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Jurowski & Gursoy, 2004; Gursoy & Rutherford, 2004).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이거나 새로운 브랜드의 획득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영원히 후손에 물려주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보존관리 및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제주 관광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유산등재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연구 변수들을 도출해내고 셋째, 유산과의 공간적 거리, 출생지, 애착도, 관광산업 관련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유산 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본 연구는 제주가 향후 추진해나갈 유산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

세계유산협약은 인류역사상 귀중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이 해당 소재국의 빈약하고 불안정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유산협약의 이념에 의거하여 소재국의 영역을 막론하고 인류 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등록하여 보호·관리하고자 하였다(문창현, 2003).

<표 1> 세계자연유산 선정 기준

선정번호	내용
vii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뛰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viii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x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나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

자료 : www.unesco.org

이러한 세계유산은 크게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2005년에 새롭게 공포된 10가지의 세계유산 선정기준 중 자연유산은 (vii), (viii), (ix), (x)번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른 기본 사항으로 첫째, 해당 유산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한다(www.unesco.or.kr).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3곳이다.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순산화산체이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360개의 단성화산체(cinder cones: 제주방언으로는 오름이라 함) 중의 하나이며, 수성화산체로서 해안선 근처에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분석구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0~30만 년 전에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부터 여러 개의 용암동굴이 만들어 진 것이며, 이 동굴계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은 뽕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처물동굴이다. 이러한 한라산, 거문오름동굴계, 성산일출봉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신기성으로 인해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vii), (viii)에 해당하여 등재가 이뤄질 수 있었다(<표 1> 참조). 또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세 장소의 핵심범위와 완충범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의 핵심범위와 완충범위

지역명	핵심범위(ha)	완충범위(ha)
한라산 (Hallasan Natural Reserve)	9,093.1	7,347.4
거문오름용암동굴계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330.3	1,906.4
성산일출봉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51.8	117.0

자료 : www.unesco.org

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미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거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필수적이지만(Brunt & Courtney, 1999) 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유산지구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주민의 인식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인식 대상은 세계자연유산등재로 한정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 중 이러한 등재 자체에 대한 인식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광

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광산업 경영자, 행정가, 관광관련 학자들에게 관광의 발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및 태도는 점점 더 큰 관심분야가 되어가고 있다(Hernandez, Cohen & Garcia, 1996). 왜냐하면 관광활동 자체가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관광객의 관광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관광객 만족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관광목적지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방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차이 있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개인의 반응을 살펴볼 때 상반되는 결과 값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분석들과 상반되는 결과는 부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복잡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Hernandez, Cohen & Garcia, 1996). 지역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Williams & Lawson, 2001).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지는데 관광산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의 비율 등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Madrigal, 1995). 이러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선호도, 지역주민 대비 관광객 수 등의 변수가 이용된다. 또한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단순하게 지리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Madrigal, 1995; Williams & Lawson, 2001)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한 지역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사회에는 노인집단, 동성애자집단, 소수민족집단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향 요인은 지역주민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연령, 수입, 지역애착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성 및 수입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반응을 파악한다. 또한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인식 분석 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및 관광영향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Williams & Lawson, 2001)는 주장도 있다.

지역주민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환경적)인 부분을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Perdue, Long and Allen, 1987; Gursoy, Chen &

Yoon, 2000)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이러한 구분은 인위적이며 중복되기도 하지만(Ap & Crompton, 1998)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긍정적인 인식은 관광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재방문과 긍정적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II.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가설

1)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매력물과의 거리(Uriely, Israeli & Reichel, 2002)에 따라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은 지리적인 거리 개념(spatial proximity)이 지역주민들의 인식만이 아니라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Jurowski & Gursoy, 2004). Mansfeld(1992)의 연구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지역주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Jurowski과 Gursoy(2004)의 연구에서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산일출봉을 포함하고 있는 성산지역주민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포함하고 있는 김녕·세화지역주민을 근거리 지역주민으로 설정하고 그 외 지역주민을 장거리 지역주민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 : 근거리/장거리 지역주민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출생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출생지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타 지역이 출생지인 주민들보다 그 지역이 출생지인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avis, Allen & Cosenza, 1988). 특히 제주 지역은 예전부터 권당문화(고승익·오상운·고경실·조문수, 2007)라 하여 친족을 중심으로 지역밀착성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2 : 지역주민의 출생지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애착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애착도(attachment)는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Gursoy & Rutherford, 2004; 윤종국·한권상, 2005).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 연구(Mansfeld, 1992; McCool & Martin, 1994; Gursoy & Rutherford, 2004)가 있는 반면 애착도와 긍정적 인식의 관계가 부적관계(Um & Crompton, 1987)를 나타내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Lankford & Howard(1994)의 연구에서는 애착도와 지역주민의 인식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 지역주민의 애착도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관광산업 관련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산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Davis, Allen & Cosenza, 1988; Lankford, 1994)와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직업과 관광산업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인식에서 긍정적인 평가(Madrigal, 1993; Lankford & Howard, 1994)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King, Pizam & Milman, 1993)도 나타났다.

가설 4 :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세계자연유산과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험적 연구는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제주 전 지역 중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동굴

계가 위치한 성산지역, 김녕·세화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목척도와 개방형 비율척도로 설계된 부모의 출생지, 자신의 출생지(Haley, Snaith & Miller, 2005; Lee & Back, 2003)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인식(Gilbert & Clark, 1997; Gursoy, Jurowski & Uysal, 2002; Andereck, Valentine, Knopf & Vogt, 2005) 및 지역사회 애착도(McCool & Martin, 1994; 강신겸·최승담, 2002), 관광산업 관련성(Madrigal, 1993; Lankford & Howard, 1994)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총 8명의 조사원이 2007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470부를 배포하여 453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11부를 제외하고 442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군집분석,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89명으로 42.8%, 여성이 253명으로 57.2%, 연령대에 있어서는 20대가 162명으로 36.7%, 30대가 124명으로 28.1%, 40대가 84명으로 19.05%, 50대 이상이 72명으로 16.3%의 비율을 나타냈다. 결혼유무에서는 미혼이 187명으로 42.3%, 기혼이 255명으로 57.7%의 비율을 나타냈고, 지역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상으로 제주시 지역이 193명으로 43.7%, 서귀포시가 107명으로 24.7%, 김녕·세화지역이 76명으로 17.2%, 성산지역이 66명으로 14.9%의 비율을 나타냈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긍정적 인식(20개 문항)에 대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문항(교통소통 원활, 식당위생 개선, 조세수입 증대, 여가 기회 확대)이 신뢰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제하였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3개 요인 즉, ‘긍정적 관광홍보인식’, ‘긍정적 사회인프라인식’, ‘긍정적 경제적인식’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충분산 설명력은 60.414%의 비율을 나타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부정적 인식(15개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부정적 사회인식’,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부정적 경제인식’ 요인으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충분산 설명력은 61.896%를 나타냈다.

<표 3>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인식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구분	요인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 계수	
			1	2	3				
긍정적 인식	긍정적 관광홍보 인식	국외에서의 지명도 상승	.758	.253	.090	.646	.874		
		국내에서의 지명도 상승	.743	.225	.089	.610	.876		
		우리자연 유일성 홍보	.699	.157	.270	.586	.877		
		자연자원에 대한 홍보	.686	.064	.266	.546	.880	.891	
		자연유산 관심 증대	.671	.220	.143	.519	.880	(7.041 ^a /	
		공공서비스 개선	.621	.209	.205	.471	.882	44.007 ^b)	
		지역 사회 자긍심 증대	.605	.152	.334	.501	.880		
		국내외 관광객 교류 증대	.595	.264	.333	.534	.878		
		관광객의 증대	.576	.373	.266	.541	.878		
	긍정적 사회 인프라 인식	도로망의 확충	.109	.806	.121	.676	.732		
		관광·레저시설 개발 촉진	.226	.778	.216	.703	.701	.790	
		교통표지판의 개선	.254	.705	.092	.570	.753	(1.405 /	
		지역 미관의 개선	.301	.635	.152	.517	.765	52.786)	
		긍정적 경제인식	지역 주민의 취업 증대	.218	.147	.833	.762	.803	.845
			지역경제 활성화	.297	.213	.803	.779	.746	(1.221 /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277		.165	.775	.704	.799	60.414)		

KMO 값=.914 근사 카이제곱=3340.404 유의확률=.000

부 정 적 인 식	부정적 사회인식	생활수준의 격차 심화	.767	.075	.260	.723	.661	
		교육환경의 악화	.745	.315	-.014	.602	.654	
		균형발전에 악영향	.731	.218	.059	.615	.585	.861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	.715	-.004	.168	.674	.540	(6.558/
		지역정체성의 상실	.614	.419	.105	.721	.565	43.722)
	부정적 자연문화 인식	범죄율의 높아짐	.594	.379	.309	.650	.593	
		업적과비용으로 전략	.551	.246	.318	.518	.465	
		생태계 및 자연환경 파괴	.118	.818	.202	.719	.723	.833
		역사·문화자원의 파괴	.268	.794	.134	.565	.719	(1.638/
		향락업소 증가	.212	.633	.395	.465	.602	54.639)
부정적 경제인식	소음/대기오염/쓰레기증가	.304	.626	.408	.593	.650		
	세금 부담의 증가	.203	.121	.786	.540	.674	.791	
	물가의 전반적 상승	.290	.233	.763	.661	.721	(1.089/	
	부동산 가격 상승	.024	.208	.755	.654	.615	61.896)	
	혼잡성의 증가	.275	.389	.539	.585	.518		

KMO=.909 근사 카이제곱=3069.369 유의확률=.000

^a: eigen-values, ^b: 누적분석설명력

<표 4>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한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요 인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 계수
		1	2	3			
정 체 성	이 지역에 산다는 이야기를 함	.793	.125	.174	.675	.851	
	이 지역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	.778	.211	.072	.655	.855	.877
	이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움	.747	.384	.103	.716	.838	(6.114 ^a /
	이 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함	.722	.378	.112	.677	.848	43.673 ^b)
	이 지역에 대해 많이 얘기할 수 있음	.692	.159	.264	.573	.862	
의 존 성	내가 살기 가장 좋은 지역임	.178	.828	.168	.746	.780	.833
	내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261	.771	.047	.664	.801	(1.569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음	.198	.640	.288	.532	.813	/
	다른 어떤 곳보다 살기 좋음	.380	.571	.081	.563	.804	54.882
친 분 성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면 섭섭함	.418	.530	.232	.603	.797)
	이 지역에서 비공식적 활동을 함	.073	.184	.764	.622	.681	.761
	친한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374	.048	.730	.675	.672	(1.278
	이 지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함	-.100	.364	.702	.635	.741	/
	편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많음	.408	.010	.678	.626	.702	64.011
)	

KMO=.882 근사 카이제곱=3033.865 유의확률=.000

^a: eigen-values, ^b: 누적분석설명력

에착도에 따른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정체성, 의존성, 친분성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공통성에서는 모두 0.5 이상, 신뢰성에서는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적재량은 0.5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3. 가설검증

1) 가설 1의 검증

유산과의 공간적 거리 즉, ‘근거리/장거리 지역주민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산·김녕·세화 지역주민들은 근거리 지역주민으로 설정하고,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은 장거리 지역주민으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산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적 관광홍보인식, 긍정적 사회인프라 인식, 긍정적 경제인식에서는 장거리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부정적 경제인식에서는 근거리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하지만 부정적 사회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산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분석

구분	유산과의 거리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긍정적 관광홍보인식	근거리	142	3.5571	.60531	-2.740	.006**
	장거리	300	3.7100	.51787		
긍정적 사회인프라인식	근거리	142	3.5552	.60558	-3.017	.003**
	장거리	300	3.7311	.50351		
긍정적 경제인식	근거리	142	3.1791	.79023	-2.931	.004**
	장거리	300	3.3995	.64052		
부정적 사회인식	근거리	142	2.8047	.69143	1.466	.144
	장거리	300	2.7044	.64168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근거리	142	2.9527	.81250	2.513	.013*
	장거리	300	2.7526	.73533		
부정적 경제인식	근거리	142	3.2990	.71468	2.564	.011*
	장거리	300	3.1276	.63162		

* p<.05, ** p<.01, *** p<.001

2) 가설 2의 검증

지역주민의 출생지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지를 제주와 제주 외로 구분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긍정적 인식에서는 출생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사회인식,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부정적 경제인식에서는 출생지가 제주가 아닌 경우에서 더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Davis, Allen & Cosenza(1988)의 연구에서는 출생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에서 지역에서 출생한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격차로 인해 지역 출신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주민들이 관광개발 및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표본은 지리적·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원인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6> 출생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분석

구분	출생지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긍정적 관광홍보인식	제주	332	3.6687	.51639	.599	.594																																																				
	제주 외	110	3.6320	.65205			긍정적 사회인프라인식	제주	332	3.6764	.55118	.300	.764	제주 외	110	3.6583	.53105	긍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3293	.67928	.261	.794	제주 외	110	3.3091	.76587	부정적 사회인식	제주	332	2.6924	.62438	-2.577	.010*	제주 외	110	2.8794	.74286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제주	332	2.7300	.71280	-4.409	.000***	제주 외	110	3.0955	.85602	부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0931	.60921	-5.234	.000***	제주 외
긍정적 사회인프라인식	제주	332	3.6764	.55118	.300	.764																																																				
	제주 외	110	3.6583	.53105			긍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3293	.67928	.261	.794	제주 외	110	3.3091	.76587	부정적 사회인식	제주	332	2.6924	.62438	-2.577	.010*	제주 외	110	2.8794	.74286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제주	332	2.7300	.71280	-4.409	.000***	제주 외	110	3.0955	.85602	부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0931	.60921	-5.234	.000***	제주 외	110	3.4659	.74384								
긍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3293	.67928	.261	.794																																																				
	제주 외	110	3.3091	.76587			부정적 사회인식	제주	332	2.6924	.62438	-2.577	.010*	제주 외	110	2.8794	.74286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제주	332	2.7300	.71280	-4.409	.000***	제주 외	110	3.0955	.85602	부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0931	.60921	-5.234	.000***	제주 외	110	3.4659	.74384																			
부정적 사회인식	제주	332	2.6924	.62438	-2.577	.010*																																																				
	제주 외	110	2.8794	.74286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제주	332	2.7300	.71280	-4.409	.000***	제주 외	110	3.0955	.85602	부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0931	.60921	-5.234	.000***	제주 외	110	3.4659	.74384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제주	332	2.7300	.71280	-4.409	.000***																																																				
	제주 외	110	3.0955	.85602			부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0931	.60921	-5.234	.000***	제주 외	110	3.4659	.74384																																									
부정적 경제인식	제주	332	3.0931	.60921	-5.234	.000***																																																				
	제주 외	110	3.4659	.74384																																																						

* p<.05, ** p<.01, *** p<.001

3) 가설 3의 검증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7>과 같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도 높은 집단(n=220), 애착도 낮은 집단(n=215)으로 분류되었으며 애착도 높은 집단은 정체성이 4.22, 의존성이 3.94, 친분성이 3.94의 평균값을 나타냈고, 애착도 낮은 집단은 정체성이 3.25, 의존성이 2.83, 친분성이 2.82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7> 지역사회 애착도 군집분석 및 판별분석

		애착도	정체성	의존성	친분성
군집 분석	군집				
	군집1 (n=220) : 애착도 높은 집단		4.22	3.94	3.94
	군집2 (n=215) : 애착도 낮은 집단		3.25	2.83	2.82
		F값 (Prob.)	294.306 (.000)	388.792 (.000)	336.444 (.000)
판별 분석	실제군집	예측 소속군집	군집1(%)	군집2(%)	전체(%)
		군집1	216(98.2)	4(1.8)	220(100)
		군집2	0(.0)	215(100.0)	215(100)

Wilks' Lambda=.350, 카이제곱=452.471, Prob=.000, 적중률(Hit Ratio) = 99.1%

지역사회 애착도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자연문화인식과 부정적 경제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의 모든 요인들은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으며, 부정적 사회인식에서는 지역사회 애착도가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평균값을 살펴보면 긍정적 인식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평균 3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인식에서도 부정적 사회인식과 부정적 자연문화인식에서는 평균 3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정적 경제인식에서는 애착도가 높은 집단이 3.1806, 애착도가 낮은 집단이 3.2000보다 부정적 경제인식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애착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분석

구분	애착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긍정적 관광홍보인식	애착도 높은 집단	220	3.7938	.50919	5.424	.000***
	애착도 낮은 집단	210	3.5107	.57226		
긍정적 사회인프라인식	애착도 높은 집단	220	3.5936	.52946	4.825	.000***
	애착도 낮은 집단	212	3.3236	.62765		
긍정적 경제인식	애착도 높은 집단	220	3.7602	.53811	3.499	.001**
	애착도 낮은 집단	209	3.5778	.54176		
부정적 사회인식	애착도 높은 집단	217	2.6715	.69549	-2.195	.029*
	애착도 낮은 집단	214	2.8104	.61637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애착도 높은 집단	216	2.7870	.82145	-1.042	.298
	애착도 낮은 집단	215	2.8640	.70697		
부정적 경제인식	애착도 높은 집단	216	3.1806	.71839	-.302	.762
	애착도 낮은 집단	215	3.2000	.61247		

* p<.05, ** p<.01, *** p<.001

4) 가설 4의 검증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9>와 같이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높은 집단과 관련성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표 10>과 같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련성 높은 집단은 243명으로 관광과의 직업 관련성과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평균점수가 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성 낮은 집단은 2 미만의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 인식에서는 긍정적 관광홍보인식과 긍정적 경제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성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부정적 인식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성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관광산업 관련성 군집분석 및 판별분석

		관광산업 관련성	직업의 관련성 ^a	경제적 이득 ^b
군집 분석	군집			
	군집1(n=243): 관련성 높은 집단		3.57	3.49
	군집2(n=199): 관련성 낮은 집단		1.70	1.69
		F값(Prob.)	936.999(.000)	848.611(.000)
판별 분석	예측 소속군집		군집1(%)	군집2(%)
	실제군집	군집1	243(100.0)	0(1.8)
		군집2	1(.5)	198(99.5)

^a: 귀하의 직업은 관광산업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b: 귀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까?

Wilks' Lambda=.291, 카이제곱=542.305, Prob=.000, 적중률(Hit Ratio)= 99.8%

<표 10> 관광산업 관련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분석

구분	관광산업 관련성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긍정적 관광홍보인식	관련성 높은 집단	243	3.7181	.54791	2.463	.014**
	관련성 낮은 집단	199	3.5879	.55060		
긍정적 사회인프라인식	관련성 높은 집단	243	3.6898	.55809	.734	.464
	관련성 낮은 집단	199	3.6513	.52960		
긍정적 경제인식	관련성 높은 집단	243	3.4229	.69363	3.252	.001**
	관련성 낮은 집단	199	3.2064	.69353		
부정적 사회인식	관련성 높은 집단	243	2.6765	.61946	-2.151	.032*
	관련성 낮은 집단	199	2.8124	.69960		
부정적 자연문화인식	관련성 높은 집단	243	2.7061	.73882	-3.474	.001**
	관련성 낮은 집단	199	2.9594	.78018		
부정적 경제인식	관련성 높은 집단	243	3.1077	.63523	-2.687	.007**
	관련성 낮은 집단	199	3.2805	.68954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시사점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라 향후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 미지수이며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자세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자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는가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산과의 거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사회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Mansfeld(199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Jurowski & Gursoy(2004)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었던 성산·김녕·세화 지역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개발과 정책들을 경험하였지만 기존의 관광개발 정책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서도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출생지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인식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주 외 지역이 출생지인 주민들에게서 더 큰 부정적 인식이 도출되어져 Davis, Allen & Cosenza(198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냈으며, 부정적 자연문화인식에서 제주가 출생지인 경우에는 2.7300의 값을, 제주 외 지역이 출생지인 경우에는 3.0955의 값을 나타내 제주가 출생지인 경우 부정적 자연문화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값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낼 수 없으므로 향후연구에서 본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애착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애착도 높은 집단이 긍정적 인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부정적 인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Mansfeld(1992), McCool & Martin

(1994), Gursoy & Rutherford(2004)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Um & Crompton(198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관광산업 관련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Lankford & Howard(1994)의 연구와 같이 관광산업에 대한 관련성이 높을수록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하고, 부정적 인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으로 확장시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각각 연구되어져온 유산과의 거리, 응답자의 출생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관광산업과의 관련성 변수들을 함께 이용하여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주의 현 상황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자연유산 중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위치한 성산·김녕·세화 지역 주민들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산관광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나갈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어려워지며 이는 곧 유산의 빠른 소실과 관광객의 불만족으로 연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개발 및 보호 정책에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만을 분석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횡단적인 조사가 이뤄진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등재 초기와 이와 관련된 산업 발전 및 정책의 진행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신겸 · 최승담(2002).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측정척도 개발. 『관광학연구』, 26(1), 103-117.
- 고승익 · 오상운 · 고경실 · 조문수(2007).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축제 영향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4), 177-198.
- 문창현(2003). 백령도지역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한 시론적 연구-프랑스 코르시카의 지롤라타 곶, 포르토 곶과 스강돌라 자연보호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정책학회』, 9(1), 99-122.
- 윤종국 · 한권상(2005). 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사회 형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605-616.
- Andereck, K. L., Valentine, K. M., Knopf, R. C., & Vogt, C. A.(2005).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1056-1076.
- Ap, J., & Crompton, J. L.(1998). Dev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Impac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20-130.
- Apostolakis, A.(2003). The Converge process in Heritage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 795-812.
- Brunt, P., & Courtney, P.(1999). Host Perceptions of Sociocultural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3), 493-515.
- Davis, D., Allen, J. & Cosenza, R.(1988). Segmenting Local Residents by Their Attitudes, Interest and Opinions toward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 2-8.
- Gilbert. D., & Clark. M.(1997).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Urban Tourism Impact with Reference to Residents Attitudes in the Cities of Canberra and Guildford. *Cities*, 14(6), 343-352.
- Gursoy, D., & Rutherford, D. G.(2004). Host Attitudes toward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495-516.
- Gursoy, D., Chen, J., & Yoon, Y.(2000).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ssess the Effects of Tourism Impact Factors and Local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31st Annual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June. San Fernando Valley CA., 243-250.

- Gursoy, D., Jurowski, C., & Uysal, M.(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79-105.
- Haley. A. J., Snaith, T., & Miller, G.(2005).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a case study of Bath, UK.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3), 647-668.
- Hernandez, S. A., Cohen, J., & Garcia, H. L.(1996). Residents' Attitudes towards an Instant Resort Enclav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4), 755-779.
- Jurowski, C., & Gursoy, D.(2004). Distance Effect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2), 296-312.
- King, B., Pizam, A., & Milman, A.(1993).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on Nadi, Fiji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650-665.
- Lankford, S., & Howard, D.(1994). Developing a Tourism Attitude Impact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 121-139.
- Lankford, S.(1994).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Tourism and Rural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24(3), 35-44.
- Leask, A., & Fyall, A.(2006). *Managing World Heritage Sites*. Burlington: Butterworth-Heinemann.
- Lee, C. K., & Back, K. J.(2003). Pre-and Post-Casino Impact of Residents' Percep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4), 868-885.
- Madrigal, R.(1993). A Tale of Tourism in Two C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336-353.
- _____ (1995). Residents' Perceptions and the Role of Govern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 86-102.
- Mansfeld, Y.(1992). Croup-Differentiated Perceptions of Social Impacts Related to Tourism Development. *Professional Geographer*, 44, 377-392.
- McCool, S., & Martin, S.(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34.
- Perdue, R. R., Long, P. T. & Allen, L.(1987). Rural Resident Tourism Perceptions and Attitud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420-429.
- Sheldon, P. J., & Abenoja, T.(2001). Resident Attitudes in a Mature Destination: The Case of Waikiki. *Tourism Management*, 22, 434-443.

- Tunbridge, J. E., & Ashworth, G. J.(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New York: John Wiley.
- Um, S. & Crompton, J. L.(1987). Measuring Resident's Attachment Levels in a Host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2), 27 - 29.
- Uriely, N., Israeli, A. & Reichel, A.(2002). Heritage Proximity and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859-861.
- Urry, J.(2003). The Sociology of Tourism. In Cooper, C.(Ed), *Classic Reviews in Tourism*, 9-21. Sydney: Channel View Publication.
- Van Der Borg, J., Costa, P., & Gotti, G.(1996). Tourism in European Heritage C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306-321.
- Williams, J., & Lawson, R.(2001). Community Issues and Resident Opinion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2), 269-290.

2008년 4월 4일 접수
2008년 5월 30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畢